

이 장에서는 해방이후 비극과 좌우익의 갈등에서 비롯된 여순사건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해방 후의 정치상황, 여순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끝으로 여순사건의 경험사례 등을 다룬 것이다.

제1절에서는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분단과정, 경제파탄에 대한 민중의 불안, 좌익의 한계와 군경간의 갈등, 미군정의 점령정책 등과 같은 여순사건 직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전남 동부지역과 순천·여수지역의 정치상황을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여순사건의 배경으로 여수 14연대와 경찰의 갈등문제, 14연대 내 좌익 구성원의 동향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여순사건의 발생과 확산뿐만 아니라 여순반군의 활동내용, 정부의 진압과정과 상호간의 피해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끝으로 이 장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제3절인데, 남로당 순천군당 간부와 전남도당 간부 및 여성단원의 생생한 체험담으로서 여순사건 전후의 시대적 상황을 좌익의 입장에서 구술한 내용이다. 아쉽다면 여수나 순천의 일반 시민과 우익측 인사의 체험담이 함께 실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좌익측의 기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기여 여기에 실린 구술은 매우 값진 자료로 남을 것이다.

## 제1절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을 겪는 '고통의 장'이 되었다. 해방이 한민족의 자립적인 힘과 투쟁으로 쟁취된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했던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두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양국은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따라서 한반도는 해방과 동시에 분단의 과정을 밟아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해방 직후 한민족의 최대 급선무는 통일된 자주민족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지만 '밖으로부터 주어진 해방'은 이 같은 과제를 실현하는 데 엄청난 장애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과 소련 간에 펼쳐졌던 냉전의 기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초부터 급속히 전개되었으며 한반도는 미소냉전의 세계적인 전초기지가 되었다. 해방이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 미소 간의 냉전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 첨예하고 신속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 간의 냉전기류는 한민족의 민족국가 형성과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국과 소련은 각기 한반도에 자국에 유리한 정치체제가 수립되기를 희망했으며 이 같은 흐름은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에 각기 상이하고 적대적인 국가형태가 자리잡게끔 강요했다.

북한에는 소련식의 사회주의정권이 신속하게 자리잡을 수 있었다. 해방 직전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중도좌파 성격의 여운형(呂運亨)이 주도했던 건국준비위원회가 주축이 된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정권이 비교적 순조롭게 수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 북한 사회주의정권은 친소련파인 김일성 일파가 주축이 되고 자생적인 민족주의와 좌파세력이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남한에는 정반대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었다. 미국은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위원회의 존립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자생적인 민중조직을 적대시하고 조직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에 몰두했다.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의 남쪽에 친미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이 같은 미국의 국가이익에 민족주의세력, 중도세력,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세력은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그러나 해방 당시 인민위원회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전국적인 조직이었을 뿐 아니라 일부 친일세력, 다시 말해 일제에 기생했던 지주와 지식인그룹, 관료와 경찰집단 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세력이 참여해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치안활동과 식량배급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이르기까지 준(準)정부에 가까웠다.

미국은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말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이 수립되기까지 군정통치를 실시했으며, 미군정의 제1차적 목표는 친미적인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제에 협력했던 친일세력이 미군정의 막강한 후원에 힘입어 관료기구·경찰·교육기관 등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차지했으며, 이와는 정반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민족주의·좌파세력은 미군정에게 철저히 소외되거나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탄압을 받았다.

\* 제1절은 황남준(黃南俊) 집필임.

미군정의 통치가 1년여 동안 진행된 1946년 10월, 남한의 전역에서 발생했던 '가을항쟁'은 전남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을항쟁, 이는 흔히 추수폭동으로 일컬어지는데 전국 각지에서 미군정의 정책에 반대해 수백만 명의 민중이 참가했다. 민족국가 수립, 친일분자 처단, 민생문제 해결 등이 주요 요구사항이었다. 또 분단국가 수립을 위한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해 1948년 2월부터 남한 전역에서 발생한 단독선거 반대투쟁에서도 전남지역은 치열한 활동을 보였다.

그러나 순천과 여수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좌우익의 피를 흘리는 투쟁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는 순천과 여수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정치 사회적 문제점들이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역의 정치적 문화가 중도·민족주의 세력에 속하는 인사들의 영향력에 힘입어 조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과 여수의 인민위원회 조직은 여순사건이 발생한 1948년 10월까지 상당부분 온존할 수 있었으며, 분단국가 수립에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 있었다.